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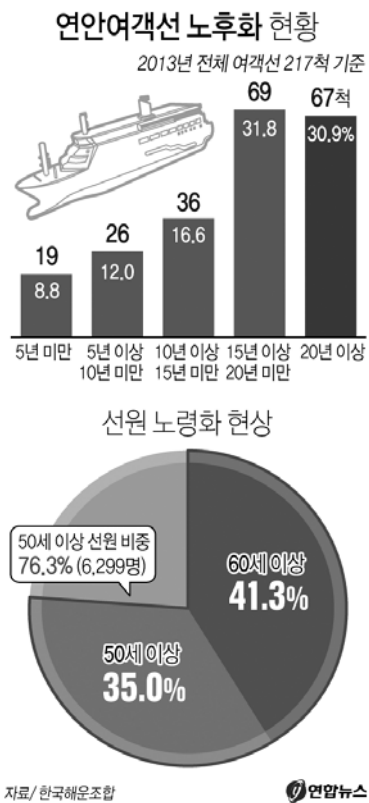
# 상당수가 15년 이상 '노후 선박' ... 뱃길 불안

## 전남 연안 여객선 현황

목포~제주 선령 24년

녹동~제주도 20년 넘어

광주·전남 뱃길이 불안하다. 낡은 연안 여객선이 적지 않고 20년 전 서해페리호 침몰 사건 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선박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비교적 단거리 운항 노선에서는 승선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운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12 오후 세월호 사고 현장인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앞 해상에서 침몰 선박 부양을 위한 리프트백(공기 주머니)이 설치된 모습이다. 뒤쪽으로는 선박 인양을 위해 대기 중인 대형크레인의 모습이 보인다. /연안뉴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의 점검기시 점검과 무선경에 수년 전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했음에도, 현장에는 미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목포·여수지방해양항만청 등에 따르면 전남 연안을 오가는 여객선 상당수는 건조된 지 15년 넘는 선박이 대부분이다.

목포~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의 경우 지난 1990년에 진수, 건조된 지 20년이 넘는 선박이며 또 다른 여객선도 95년에 제작된 뒤 지난해부터 목포~제주 항로를 운항중이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파악한 녹동~제주간 여객선에는 지난 1991년에 건조된 배가 사용되고 있으며 장흥~제주간 여객선은 지난 1996년 호주에서 건조, 16년간 영국 도버해협을 오가는 여객선으로 운항해오다 2012년 국내에 들어왔다.

여수 지역 섬을 도는 차도선(차량을 실을 수 있는 여객선)도 지난 일부 선박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1990년대 제

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륙교 개설 등으로 이용자는 날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승선 요금 등은 오랜 기간 동결된 점도 영세성을 악화시킨다는 게 업계 하소연이다.

당국의 부실 점검도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뱃길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19일 공개한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합동 안전점검 결과 등에 따르면 목포해경의 경우 지난해 7월 여객선을 대상으로 2시간 40분동안 12척의 여객선을 점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보면 여객선 한 척을 검사하는 데 불과 13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점검반 인원도 목포해경영찰서 해상안전과장과 해양수산부 담당 사무관 등 4명에 불과했고 점검 결과 '특이점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 부실한 점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도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2010년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운영개선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사람의 과실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항해를 위한 선원 자질 향상 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당시 보고서는 또 선박 관계자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와 저해 요인'을 묻는 결과 ▲ 운항 일정 촉박 ▲ 안전관리 매뉴얼 분량 과다 ▲ 선원들의 고령화 ▲ 선원 자질 부족 등을 안전 위협 요소로 지적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사람의 과실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항해를 위한 선원 자질 향상 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당시 보고서는 또 선박 관계자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와 저해 요인'을 묻는 결과 ▲ 운항 일정 촉박 ▲ 안전관리 매뉴얼 분량 과다 ▲ 선원들의 고령화 ▲ 선원 자질 부족 등을 안전 위협 요소로 지적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해양안전종합관리 '이내비게이션' 구축 시급

최적항로 자동안내 등

전남도를 비롯한 서남해안 연안에 대규모 해난사고가 집중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서남해안 해양재난사고의 특징이 발생 시 사후 대처 미흡으로 사고 규모에 비해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이나 군 등과의 협조체계의 구축이 시급하

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967년 여수 한일호 사건, 지난 1993년 서해페리호 사건 등 100명 이상 인명피해를 낸 해난사고는 물론 올 초 원유 16만4000ℓ가 유출된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 등 대부분의 해난 사고가 서남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 진도 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인원 초과, 과적, 운항 미숙 등 인재

요인과 함께 조석 간만의 차로 인한 거센 조류, 유인도 및 육지 간 해상 교통 급증 등 자연적 요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관매도 인근 조도면 병풍도 21km 해역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의 '맹골수도'로, 인근의 울돌목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센 곳이다.

이곳은 서해에서 남해로 가는 대형 선박들이 주로 이용하는 항로이며,

맹골도, 서거차도, 관매도, 병풍도 등이 모여 있는데다 폭이 좁고 수심도 낮아 최고 유속은 시속 11km에 달할 정도다. 지난 2002년부터 이 근처 해상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58건이나 발생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용 유치를 목적으로 제주항로 설치로 서두르는 것은 물론 최근 섬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선박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해난사고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전남도가 해운조합 협조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896만명이 도내 항구를 통해 섬을 찾

아 지난해 779만명보다 15%, 지난 2006년보다 59%가 급증했다. 그만큼 오가는 선박 수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계각(54)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과부 교수는 "조류가 강하고 해안선이 복잡한데다 최근 서남해안의 해상교통의 수요가 급증한 것이 해양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안전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채 물리적인 과부하가 일어난 것으로, 이내비게이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d@ /임준표 수습기자 lotus@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3분  
해질 19시 10분

달출 00시 06분  
달정 10시 44분

진도해상 '맑음'

오전 인계 짙으니 교통안전 유의바람

지역	구름량	기온
광주	구름맑음	9/24℃
목포	구름맑음	9/20℃
여수	구름맑음	12/20℃
나주	구름맑음	7/24℃
완도	구름맑음	10/22℃
구례	구름맑음	8/25℃
강진	구름맑음	8/24℃
해남	구름맑음	8/22℃
장흥	구름맑음	8/25℃
순천	구름맑음	10/25℃
영광	구름맑음	8/21℃
진도	구름맑음	9/19℃
전주	구름맑음	9/23℃
군산	구름맑음	9/20℃
남원	구름맑음	8/22℃
홍산도	구름맑음	10/1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0.5~1.0m 주의 보통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1.0~2.0m 주의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목포 06:25 11:34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18:32 23:4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m 여수 00:57 07:1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13:10 19:1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1/22	11/23	11/24	12/24	13/20	14/20

## "날씨가 도와줘 ... 실종자 생환 믿는다"

내·외국인 격려 메시지 잇따라

“날씨가 도와줘. 바람아, 파도아, 비야 도와줘.”

20일 실종자 가족지원 상황실이 설치된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엔 실종자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은 국내외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현장을 찾은 이들은 실종자 가족들이 자리한 천막 등에 격려의 메시지를 적은 뒤 무사 생환을 빌었다.

자신을 '광주시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단원고에 기적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이, 최대한의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적었고, 자신의 이름을 '정승현'이라고 쓴 이는 "우리 믿는다. 꼭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라고 썼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과 더딘 수색·구조작업을 질타하는 이도 있었다.

이들은 "천안함 사건 직후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는데, 거짓말이 있느냐", "기상 텃만 하지 말고 제 자식을 살리는 마음으로 구조작업에 임

하라", "정부는 무언가 숨기려고 하는데, 실종자 가족에게 모든 과정을 공개하라"고 썼다.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를 바라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자신을 이근선이라고 밝힌 이는 "가족들이 애타고 기다리고 있다. 아들, 딸 돌아와서 돌아와 가족의 품에 안기렴"이라고 적었다.

실종자 가족을 격려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자신을 '미국인 Tony'라고 밝힌 한 외국인인 "사망한 이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들, 그리고 아직까지 차가운 바닷 속에서 생환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는 실종자들이 모두 살아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썼다.

한편, 실종자 가족지원상황실 천막 등 팽목항 주변엔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바라는 국내 및 외국인들의 격려·희망메시지 수백개가 붙어 있다. /임준표 수습기자 lotus@kwangju.co.kr

#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15평(실 9평) 1세대**

- 13층, 무등산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감정가 4,500만원
- 급매가 3,500만원

**38평(실 22평) 1세대**

- 2층, 하천 쪽,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 급매가 1억원

**77평(실 44평) 1세대**

- 20층, 최상층, 전망 좋음,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3억원
- 급매가 2억 5,000만원

**29평(실 18평) 3세대**

- 10/12/13층, 하천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분양가 1억원
- 급매가 6,500만원

**53평(실 33평) 1세대**

- 13층, 양동/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2억원
- 급매가 1억 5000만원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문의 010-4667-9300**

- 관리비 평당 7,000원, 대형주차장 완비
- 개별 냉/난방 시설

**경매투자**

- ▶ 경매 특수비법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